

한글로 보는 '조선범죄사'...10년 번역 끝 완성

입력 2014.09.29 (06:37) 수정 2014.09.29 (09:22)

뉴스광장 1부



<앵커 멘트>

조선 후기 역모죄 같은 중대 범죄의 심문과 재판 기록이 '추안급국안'인데요.

10년 간의 번역 작업을 거쳐 모두 90권의 한글본이 완성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

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<리포트>

영조 4년인 1728년, 이른바 이인좌의 난으로 불리는 무신난이 일어났습니다.

반란군에 들어갔던 정읍 태인의 군관 이장욱은 난이 진압된 뒤 붙잡혀 어영청의 추국을 받자 모두 상관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발뺌합니다.

관아에서 명령을 내려 자신은 마지못해 출두했다는 이장욱의 진술은 기록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

이처럼 조선 후기 3백년 동안의 중대범죄 2백 79건에 관한 추국 현장의 생생한 기

록이 바로 추안급국안입니다.

지난 10년 간 열 명의 연구자가 원본 3백 31책에 대한 한글 번역본 90권을 완성했습니다.

<인터뷰> 변주승 (전주대학교 교수) : "이제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조선 왕조의 속살을 들여다 보고 그 사회의 이면을 볼 수 있는, 계기가 된다."

정사이면서도 야사 못지않게 지배층의 권력투쟁이나 민중운동, 종교 갈등, 서민 생활상 등이 고루 담겨 학제간 연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.

<인터뷰> 조광 (명예교수/한국고전문화연구원장) : "조선후기의 역사적인 근거에 주목하고 있는 정치, 경제, 사회 이러한 분야 모두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."

추안급국안 번역본의 자료 등록 작업이 마무리되는 3년 뒤쯤이면, 누구나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.

KBS 뉴스 오중호입니다.

저작권©KBS뉴스(<http://news.kbs.co.kr>).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